

<2017. 10. 21. 시행 국가직 7급 공무원 문항 분석>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선사시대	1			
고대	2, 8			3, 4
중세	12, 18	6		9
근세	11			5
근대태동기	10		20	15
근대개항기	14, 16			
일제강점기	17			
현대	7, 13, 19			

< 총 평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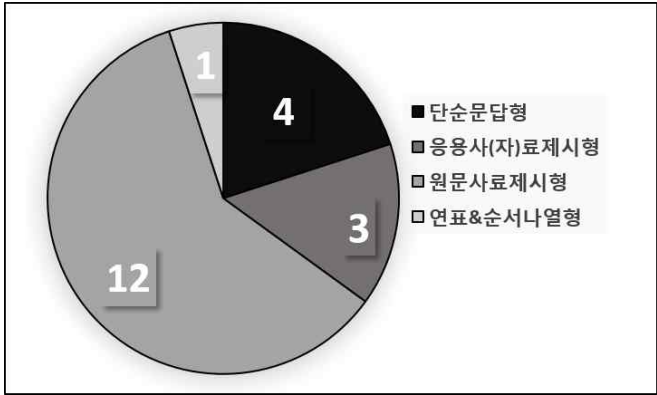
2017년 10월에 실시된 국가직 7급 한국사는 **올해 6월과 작년에 실시된 국가직 7급에 비해 다소 평이한 난이도로 출제되었다**. 문제 유형은 **자료제시형 문제가 15문제**, 단순문답형 문제가 4문제, 순서 나열형 문제는 1문제 출제되었다. 연표 제시형 문제는 한 문제도 출제되지 않았다.

시대사로는 **전근대사가 14문제, 근현대사가 6문제 출제**되었다. 전근대사에서는 선사시대 1문제, 고대 4문제, 중세 4문제, 근세 2문제, 근대 태동기 3문제가 출제되었다. 근현대사에서는 근대 개항기 2문제, 일제 강점기 1문제, 현대 3문제 출제되었다. 함께 실시된 9급 국가직과 마찬가지로 고대사와 중세사에서 무려 8문제나 출제되었다.

분류사로는 정치사 13문제, 경제사 1문제, 사회사 1문제, 문화사 5문제가 출제되었다. 종래의 시험과 비교해서 경제·사회사의 비중이 다소 낮은 편이었다.

근현대사에서 양전지계사업(16)과 1910년대 일제 정책(17)에 대해 지엽적인 부분을 묻는 문항이 출제되어 난이도를 높였다. 또한 상정고금예문에 대해 단독으로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또한 이번에 실시된 국가직 9급과 마찬가지로 병자호란 관련 사료가 출제되었다.

<출제 문항 유형 분석>



< 출제 문항 주제 분석 >

문항 번호	출제 분류	출제 주제	난이도
1	선사	고조선	하
2	고대 정치	신라의 발전(마립간)	하
3	고대 문화	발해	중
4	고대 문화	백제의 대외교류	중
5	근세 문화	통치서	중상
6	중세 경제	고려의 상공업	중
7	현대 정치	김구	상
8	고대 정치	경덕왕	상
9	중세 문화	상정고금예문	중하
10	근대기 정치	인조	중
11	근세 정치	김종직	중하
12	중세 정치	고려의 중앙 통치 기구	중
13	현대 정치	이승만 정권	중상
14	근대 정치	홍선대원군	상
15	근대기 문화	박제가	중하
16	근대 정치	지계 사업	상
17	일제 정치	일제의 통치	상
18	중세 정치	중세 시간 순서 배열	중하
19	현대 정치	건국 준비 위원회	중
20	근대기 사회	조선 후기 사회 모습	중하

< 고난도 문항 분석 >

분류	문항	출제 주제	특징
고난도 문항	17	1910년대 일제 지배 정책	연초전매제와 조선식산은행은 그동안 시험에서 거의 출제되지 않은 낮은 주제여서 수험생들에게 어려운 문제였다.
	8	경덕왕	낮선 사료인 안민가를 보고 경덕왕을 유추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적 어려운 문제였다.
	7	김구	민족 자주 연맹의 결성에 김구가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과 동학 접주로 김구가 활동했다는 것을 명백히 알아야 풀수 있는 문제로, 정답 선지를 고르는데 혼선을 가한 문제였다.
	16	양전지계 사업	양전 지계 사업에 대해서 비교적 세부적인 사항들을 묻는 문제여서 난이도가 꽤 높은 문제였다.

정답(마책형 기준)

- | | | | | |
|-------|-------|-------|-------|-------|
| 1. ④ | 2. ③ | 3. ④ | 4. ② | 5. ② |
| 6. ④ | 7. ④ | 8. ① | 9. ③ | 10. ① |
| 11. ① | 12. ② | 13. ① | 14. ④ | 15. ② |
| 16. ② | 17. ① | 18. ④ | 19. ④ | 20. ③ |

1.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대개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이고,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 도둑질을 한 자는 노비로 삼는다. 용서받고자 하는 자는 한 사람마다 50만 전을 내야 한다. ... (중략) ... 농민들은 대나무 그릇에 음식을 먹고, 도시에 서는 관리나 장사꾼을 본받아 술잔 같은 그릇에 음식을 먹는다.

- ① 상가, 고추가 등의 대가가 있었으며, 국가의 중요한 일은 제가회의를 통해 결정하였다.
- ② 가축 이름을 딴 마가, 우가, 저가, 구가가 사출도를 다스렸다.
- ③ 신지, 읍차로 불리는 군장들이 70여 개의 소국을 다스렸다.
- ④ 상, 대신, 장군 등의 관직을 두었으며, 연과 대립하였다.

1. 고조선

정답 : ④

제시된 자료의 고조선의 8조법의 내용 중 일부이다. ④ 고조선은 상, 대부, 대신, 장군 등의 관직을 두고 있었으며 중국의 연나라와 대립할 정도로 세력이 강성하였다.

오답분석 : ① 고구려에 대한 설명이다. ② 부여에 대한 설명이다. ③ 삼한에 대한 설명이다.

(2018년 해법국사 1권, 8조법, 48쪽 / 여러 나라의 성장, 50~57쪽)

2. ㉠ 왕호를 사용하던 신라 시기의 사실로 옳은 것은?

신라 왕으로서 거서간, 차차웅이란 이름을 쓴 이가 각기 하나요, 이사금이라 한 이가 열여섯이며, (㉠) (이)라 한 이가 넷이다.
- '삼국사기' -

- ① 율령이 반포되었다.
- ② 대가야를 병합하였다.
- ③ 왕위의 부자상속제가 확립되었다.
- ④ 건원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2. 신라의 발전(마립간 시대)

정답 : ③

제시된 자료는 신라의 왕호 변천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에 들어갈 왕호는 마립간이다. 마립간 왕호는 내물~ 눌지 시기까지 사용하였다. ③ 눌지 마립간 때 왕위의 부자 상속제가 확립되었다.

오답분석 : ①, ④ 율령이 반포되고 건원이라는 독자적 연호를 사용한 것은 법흥왕 때의 사실이다. ② 대가야를 병합한 것은 진흥왕 때의 사실이다.

(2018년 해법국사 1권 고대의 정치적 발전 79쪽 / 신라의 발전 88~90쪽)

3.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처음에 왕들이 자주 학생들을 보내어 장안의 태학에 가서 고금의 제도를 배우도록 하였는데, 지금에 이르러 해동 성국이 되었다. 땅에 5경 15부 62주가 있다.

- ① 당과 비단, 서적, 공예품을 교역하였다.
- ② 도서와 문서를 관장하는 문적원을 두었다.
- ③ 일본에 보낸 국서에서 천손임을 자부하였다.
- ④ 정효공주묘는 굴식 돌방과 모줄임천장 구조로 축조되었다.

3. 발해

정답 : ④

제시된 자료는 발해에 대한 설명이다. ④ 정효공주묘가 아니라 정혜공주묘에 대한 설명이다.

오답분석 : ① 발해는 당과 비단, 서적, 공예품 등을 교환하였다. ② 발해는 책과 문서를 관장하는 기구로 문적원을 두었다. ③ 발해 문왕 때 일본에 보낸 국서에서 스스로 천손(天孫)임을 자처했다.

(2018년 해법국사 1권 발해의 건국과 발전 108쪽 / 발해의 통치 체제 115쪽 / 발해의 대외 무역 137쪽 / 발해의 고분 175쪽)

4. 백제가 일본에 전파한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아직기가 일본 태자에게 한자를 가르쳤다.
- ② 해관이 일본 삼론종의 시조가 되었다.
- ③ 노리사치계가 불교를 전해 주었다.
- ④ 고안무가 유학을 전해 주었다.

4. 백제의 대외교류

정답 : ②

② 일본 삼론종의 시조가 된 해관은 백제가 아니라 고구려의 승려이다.

오답분석 : ① 아직기는 4세기에 일본의 태자에게 한자를 가르쳤다. ③ 6세기 성왕 때 노리사치계가 일본에 건너가 불경과 불상을 전해주었다. ④ 무령왕 때 고안무와 단양이 등이 일본에 건너가 유학을 전해 주었다.

(2018년 해법국사 1권, 고대 국가와 일본과의 문화교류, 184쪽)

5.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에 소속된 주서는 왕과 신하 간에 오고 간 문서와 국왕의 일과를 매일 기록하여 (㉡)을/를 작성하였다. 왕이 바뀌면 전왕의 통치기록인 사초, 시정기, 조보 등을 합하여 (㉢)을/를 편찬하여 4부를 만들고 한성에는 (㉣)에 보관하였다.

- ① ㉠ - 의정의 합좌 기관으로 백관과 서무를 총괄하였다.
- ② ㉡ - 실록 편찬의 기본 자료였으며, 세계기록유산이다.
- ③ ㉢ - 임진왜란 이후 전주, 성주, 충주에 지은 사고에 각각 보관하였다.
- ④ ㉣ - 국왕의 교서를 제찬하고 외교사무를 관장하였다.

5. 조선의 정치 제도와 통치 기록

정답 : ②

㉠은 승정원, ㉡은 ‘승정원일기’, ㉢은 ‘조선왕조실록’, ㉣은 춘추관에 대한 설명이다. ② ‘승정원일기’는 왕과 신하 간의 오고 간 문서와 국왕의 일과를 기록한 책으로 이것은 실록 편찬의 기본 자료로 사용되었다. 또한 2001년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지정되었다.

오답분석 : ① 의정부에 대한 설명이다. ③ ‘조선왕조실록’은 편찬 후에 4부를 만들어서 각각 한성의 춘추관, 충주, 전주, 성주의 사고에 하나씩 보관했었는데 임진왜란 이후 전주의 사고본을 제외하고 전부 다 소실되어 이후에는 정족산, 춘추관, 오대산 사고 등 5대 사고에 보관하였다. ④ 국왕의 교서를 제찬한 것은 예문관에 대한 설명이고 외교사무를 관장한 것은 승문원에 대한 설명이다.

(2018년 해법국사 1권, 조선의 통치 체제 349~351쪽 / 조선의 역사서와 통치 기록, 437~438쪽)

6. 고려시대의 상공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고려 초기 개경, 서경 등에 시전을 두었다.
- ㄴ. 주전도감을 설치하여 해동통보를 주조하였다.
- ㄷ. 충선왕 때에 각염법을 실시하였다.
- ㄹ. 사원과 소(所)에서 수공업 물품이 제작되었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ㄹ
- ④ ㄱ, ㄴ, ㄷ, ㄹ

6. 고려의 상공업

정답 : ④

㉠ 고려 초 개경, 서경 등에 시전을 설치하였다. ㉡ 주전도감은 의천의 건의로 숙종 때 설치된 임시기구인데 여기서 삼한통보, 해동통보, 해동중보 등이 주조되었다. ㉢ 충선왕 때는 각염법을 실시하여 국가가 소금의 전매권을 가져가서 국가 재정을 확보하려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 고려 전기에는 소(所), 관청 수공업 등이 발달하였고 후기에는 사원, 민간 수공업이 발달했다.

(2018년 해법국사 1권, 중세의 화폐, 262쪽 / 중세의 경제 활동 267~268쪽 / 충선왕, 237쪽)

7. 밑줄 친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네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느님이 내게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 ① 신탁통치를 반대한 독립 촉성 중앙협의회를 조직하였다.
- ② 민족 자주 연맹을 결성하여 남북협상을 주도하였다.
- ③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대통령을 역임하였다.
- ④ 동학 접주로서 농민 전쟁에 참전하였다.

7. 김구

정답 : ④

제시된 자료는 김구의 『백범일지』에 실린 <나의 소원>이라는 논문이다. 김구가 특별히 이 논문을 『백범일지』 말미에 붙인 것은, 간행 당시 친미파, 친소파가 날뛰면서 극도의 사상적 혼미 가운데, 동포들이 통일 독립의 민주국가 건설의 자주적 민족철학과 사상을 정립하는데 참고와 자극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 ④ 김구는 동학농민운동 때 팔봉접주(八峰接主)가 되어 동학군의 선봉장으로 해주성(海州城)을 공략하였는데, 이 사건으로 1895년 신천 안태훈(安泰勳)의 집에 은거하며, 당시 그의 아들 중근(重根)과도 함께 지냈다.

오답분석 : ① 독립 촉성 중앙 협의회는 한국 민주당, 국민당을 비롯한 2백여 단체들로 구성된 단체로, 이승만을 총대로 추대하였다. ② 김구식에 관한 설명이다. ③ 임시정부의 대통령은 1대 대통령 이승만, 2대 대통령 박은식이다. 김구는 1940년대 임시정부가 주석체제로 바뀌면서 주석이 되었다.

(2017년 해법국사 2권, 임시정부, 781쪽 / 해방직후 정당활동, 876쪽)

8. 다음 시가가 만들어진 국왕대의 사실로 옳은 것은?

임금은 아버지요 신하는 사랑하실 어머니시라.
백성을 어리석은 아이라 여기시니, 백성이 그 사랑을 알리라.
꾸물거리며 사는 물생들에게, 이를 먹여 다스리네.
이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가랴, 나라 안이 유지됨을 아리이다.
아아! 임금답게 신하답게 백성답게 할지면, 나라 안이 태평하리라.

- 안민가 -

- ① 9주의 명칭을 중국식으로 바꾸었다.
- ② 귀족들의 경제적 기반인 녹읍을 폐지하였다.
- ③ 최초로 진골 출신이 왕이 되어 왕권을 강화하였다.
- ④ 최치원이 국왕에게 10여 조의 시무책을 건의하였다.

8. 경덕왕

정답 : ①

제시된 자료는 경덕왕 때 지어진 시가인 ‘안민가’이다. ① 경덕왕은 한화정책을 실시하여 9주를 비롯한 지방 군현과 중앙 관료의 칭호를 모두다 한자로 바꾸었다.

오답분석 : ② 신문왕에 대한 설명이다. ③ 태종 무열왕에 대한 설명이다. ④ 진성여왕에 대한 설명이다.

(2018년 해법국사 1권, 통일 신라의 발전과 쇠락 101~105쪽)

9.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평장사 최윤의 등 17명의 신하에게 명하여 고급의 서로 다른 예문을 모아 참작하고 절충하여 50권의 책을 만들고 (㉠) (이)라 이름하였다. - 동국이상국집 -

- ① 교서관에서 갑인자로 인쇄되었다.
- ② 금속활자로 인쇄한 판본이 남아있다.
- ③ 최씨 집권기에 활자본 28부를 간행하였다.
- ④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다.

9. 상정고금예문

정답 : ③

제시된 자료의 ㉠은 ‘상정고금예문’이다. 12세기 인종은 최윤의 등에게 명하여 의례서인 ‘상정고금예문’을 편찬하도록 하였다. ③ 상정고금예문은 강화도로 천도할 때 예관이 가지고 오지 못하였다. 이에 최우가 보관하던 것을 강화도에서 금속 활자로 28부 인쇄하였다.

오답분석 : ① 교서관은 조선시대의 관청으로, 도서의 인쇄·반포 및 각종 제사 때 축문을 쓰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또한 갑인자는 세종 때 주조된 활자이다. ② ‘상정고금예문’의 인쇄본은 오늘날 전하지 않는다. ④ ‘직지심체요절’에 대한 설명이다.

(2017년 해법국사 1권 인쇄술의 발달, 309쪽 / 중앙의 정치 조직, 351쪽)

10. 밑줄 친 ‘왕’의 재위 기간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최명길이가 마침내 국서를 가지고 비변사에서 다시 수정 하였다. 예조판서 김상헌이 밖에서 들어와 그 글을 보고는 통곡하면서 찢어 버리고, 왕께 아뢰기를 “명분이 일단 정해진 뒤에는 적이 반드시 우리에게 군신의 의리를 요구할 것이니 성을 나가는 일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중략) … 깊이 생각하소서.”라고 하였다.

- ① 수도 외곽의 방어를 위하여 충융청을 설치하였다.
- ② 훈련도감을 신설하고 포수, 사수, 살수 등 삼수병을 두었다.
- ③ 북벌 계획에 따라 어영청을 정비하여 화포병과 기병을 늘렸다.
- ④ 도성을 수비하기 위해 기병과 훈련도감군의 일부를 주축으로 금위영을 설치하였다.

10. 인조

정답 : ①

제시된 자료는 병자호란 당시의 정치 상황에 대한 내용으로, 밑줄 친 ‘왕’은 조선의 인조이다. ① 인조는 충융청을 설치하여 북한산성을 중심으로 경기 일대의 경비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오답분석 : ② 훈련도감이 신설된 것은 임진왜란 중인 선조 때의 일이다. ③ 북벌계획에 따라 어영청을 정비·강화한 것은 효종 때의 일이다. ④ 숙종 때, 병조 산하의 정초군과 훈련도감의 별대를 통합하여 금위영을 설치하였다.

(2017년 해법국사 1권, 군사 제도의 변화, 474쪽)

11. ㉠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은/는 초야의 미천한 선비로 세조대에 과거에 급제하였다. 성종대에 발탁되어 경연에 두어 오랫동안 시종의 자리에 있었다. 병으로 물러나게 되자 성종은 소재지 관리를 통해 특별히 미곡을 내려 주었다. 지금 그의 제자 김일손이 사초에 부도덕한 말로써 선왕의 일을 거짓으로 기록하고 스승인 (㉠)의 조의제문을 실었다.

- ① ‘여씨향약’을 도입하여 언문으로 간행하였다.
- ② 김평필, 조광조가 그의 도학을 계승하였다.
- ③ 외가인 밀양에 서원이 세워져 봉사되었다.
- ④ 고려 말 정몽주, 길재의 학풍을 이었다.

11. 김종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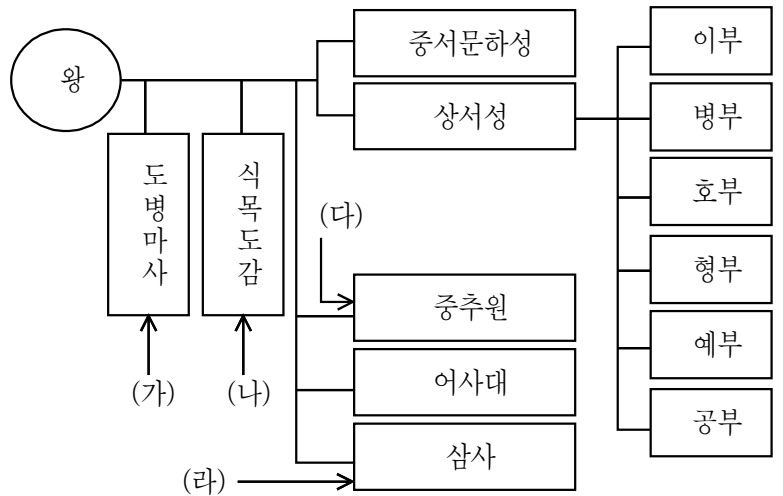
정답 : ①

제시된 자료의 ㉠에 들어갈 인물은 김종직이다. ① 조광조는 향촌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최초로 여씨향약을 도입하였다.

오답분석 : ② 김종직의 학문은 정여창, 김일손, 김평필, 조광조 등에게 이어졌다. ③ 김종직의 외가인 밀양에 서원이 세워져 그의 덕행과 학문을 추모하였다(서원의 명칭이 덕성서원에서 예림서원으로 바뀜). ④ 김종직은 고려 말 온건사대부인 정몽주, 길재 등의 학풍을 계승하였다.

(2018년 해법국사 1권, 훈구와 사림, 361쪽 / 사림의 정치적 성장과 사회, 363쪽)

12. (가)~(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가)는 법제, 격식을 다루었으며, (나)는 고려 후기에 도당으로 불렸다.
- ② (가)와 (나)는 고려의 독자적인 기구이며, 중서문하성의 재신과 (다)의 추신이 합좌하였다.
- ③ (다)는 왕명 출납과 군기의 업무를 맡았고, (라)는 백관을 규찰하고 탄핵하였다.
- ④ (다)와 (라)는 당제를 모방하여 설치하였고, 주요 사안을 6부와 협의하여 결정하였다.

12. 고려시대의 정치기구

정답 : ②

② (가) 도병마사와 (나) 식목도감은 고려의 독자적인 제도로, 중서문하성의 재신과 중추원의 추밀이 합좌하여 국정을 논의하였다.

오답분석 : ① (가) 도병마사와 (나) 식목도감에 대한 설명이 바뀌었다. ③ (라) 삼사는 화폐와 곡식의 출납에 대한 회계 업무를 맡았다. 백관을 규찰하고 탄핵하는 일을 담당하는 부서는 어사대이다. ④ (다) 중추원과 (라) 삼사는 송나라 제도를 채용하여 설치되었다.

(2018년 해법국사 1권, 통치 조직의 정비, 211~212쪽)

13. 다음은 같은 인물이 발표한 성명서이다. (가)를 발표한 때부터 (나)를 발표한 때까지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 (가) 이제 정전이 조인되었음에 정전의 결과에 대한 나의 그동안의 판단이 옳지 않았던 것이 되기를 바란다.
(나) 나는 국회의 결의를 존중하여 대통령직을 사임하고 물러앉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의 여생을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바치고자 하는 바이다.

- ① 제4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다.
② 국민학교 의무 교육이 개시되었다.
③ 임시 수도 부산에서 자유당을 창당하였다.
④ 점령지 구호(GARIOA) 원조가 전개되었다.

13. 이승만

정답 : ①

(가) 이승만이 1953년 8월 12일 발표한 정전협정에 관한 담화이다. (나)는 1960년 4·19혁명의 결과로 4월 26일에 발표한 이승만의 하야선언이다. ① 1960년 3월 15일 제4대 정·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고, 자유당은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부정선거를 추진하였다.

오답분석 : ② 초등학교 의무교육은 제헌헌법에서 명문화 되어 1950년 6월부터 시작되었다. ③ 2대 국회 의원 선거에서 참패한 이승만은 거창 양민 학살 사건과 국민 방위군 사건 등으로 민심 이반 현상이 심해지자 1951년 12월에 이범석의 민족청년단 중심으로 자유당을 창당하였다. ④ 1945년 9월 미군정의 점령지역 행정 구호 계획(GARIOA)에 따라 구호 원조가 시작되었다.

(2018년 해법국사 2권, 휴전협정, 890쪽 / 3·15부정선거, 901쪽 / 의무교육, 963쪽)

14. 밑줄 친 ‘그’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인정(人丁)에 대한 세를 신포(身布)라고 하는데 충신과 공신의 자손에게는 모두 그것이 면제되었다. 그 모자라는 액수는 반드시 평민에게만 덧붙여 징수하였다. 그는 이를 수정하고자 동포(洞布)라는 법을 제정하였다. 가령 한 동리에 2백여 호가 있으면 매 호에 더부살이 호가 약간씩 있는 것을 자세히 밝혀서 계산하고, 신포를 부과하여 고르게 징수하였다.

- ① 갑신정변 때 청군의 파견을 요청하였다.
② 군국기무처의 총재를 역임하였다.
③ 경상도 안핵사를 수행하였다.
④ 순무영을 설치하였다.

14. 흥선대원군

정답 : ④

제시된 자료는 흥선대원군의 호포제에 관한 설명이다. ④ 순무영은 전쟁이나 지방에서 반란이 일어났을 때 이의 수습을 위한 군사 업무나 민심 수습을 맡아보기 위하여 임시로 설치된 기구이다. 흥선대원군은 병인양요가 발발하자 순무영을 설치하여 군사를 모으고 순무사를 파견하기도 하였다.

오답분석: ① 김윤식 등 온건 개화파와 민씨 정권은 갑신정변 때 청군의 파견을 요청하였다. ② 김홍집은 1차 갑오개혁 때 군국기무처의 총재를 역임하였다. ③ 흥선대원군과 관련 없다. 가장 유명한 경상도 안핵사로는 진주민란 당시 파견되었던 박규수가 있다.

(2018년 해법국사 2권, 호포제, 611쪽 / 갑신정변, 633쪽 / 1차 갑오개혁, 651쪽)

15. 다음과 같이 주장한 실학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재물은 대체로 샘과 같다. 퍼내면 차고, 버려 두면 말라 버린다. 그러므로 비단옷을 입지 않아서 나라에 비단 짜는 사람이 없게 되면 여공이 쇠퇴하며, 찌그러진 그릇을 싫어하지 않고 기교를 숭상하지 않아서 공장(工匠)이 기술을 익히지 않게 되면 기예가 사라지게 되고, 농사가 황폐해져서 그 법을 잊었으므로, 사민이 모두 곤궁하여 서로 구제할 수 없게 된다.

- ① ‘의산문답’에서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생각을 비판하였다.
② 서양 선교사를 초빙하여 서양의 과학·기술을 배우자고 제안하였다.
③ 신분별로 차등을 둔 토지 재분배로 자영농을 안정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④ 중국과 일본에 있는 우리나라 관련 기록을 참조하여 ‘해동역사’를 저술하였다.

15. 박제가

정답 : ②

제시된 자료는 박제가가 ‘북학의’에서 주장한 소비론에 대한 내용이다. ② 박제는 중국에 와서 활동하고 있던 서양선교사들을 직접 초빙해다가 그들로부터 서양 선진기술을 배우자고 주장하였다.

오답분석 : ① 홍대용에 대한 설명이다. ③ 유형원은 신분에 따라 차등있게 토지를 재분배하자는 균전론을 통해 자영농을 육성하고자 주장하였다. ④ ‘해동역사’는 한치윤이 저술한 역사서이다.

(2018년 해법국사 1권, 농업 중심의 개혁론, 560쪽 / 상공업 중심의 개혁론, 564~565쪽 / 국학 연구의 확대, 568쪽)

16. 대한제국의 지계발급 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계아문에서 토지측량과 지계발급을 담당하였다.
② 개항장에서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③ 모든 산림, 토지, 전답, 가옥을 발급 대상에 포함하였다.
④ 러·일 전쟁으로 중단되어 전국적으로 확대되지 못하였다.

16. 양전지계 사업

정답 : ②

② 광무개혁에서 전국적 토지의 정확한 측량과 이에 따른 합리적 조세 부과, 근대적 토지 소유권 제도 확립을 위해 양전지계사업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개항장을 제외한 곳에서는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금지하였다.

오답분석: ① 지계아문은 1902년 1월부터 양지아문의 사업을 인수하여 지계의 발급과 함께 토지의 측량을 담당하였다. ③ 대한제국 정부는 1901년 11월에 지계아문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지계발행의 대상을 농지에 한정하지 않고, 전국의 모든 산림과 토지 전답 및 가옥까지 포함하게 하였다. ④ 대한제국의 지계발급 사업은 러·일 전쟁 중 일본의 압력으로 중단되어 전국적으로 확대되지 못하였다.

(2018년 해법국사 2권, 양전지계 사업, 667쪽)

17. 1910년대 일제의 지배 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일본인 업자에 특혜를 준 연초전매령을 공포하였다.
- ② 총독의 자문 기관인 중추원 관제를 공포하였다.
- ③ 계몽 운동을 주도한 황성신문을 폐간하였다.
- ④ 농공은행을 조선식산은행으로 개편하였다.

17. 1910년대 일제 지배 정책

정답 : ①

① 일제는 1921년에 연초전매제를 실시하였다.

오답분석 : ② 일제는 1910년 중추원 관제를 공포하여 친일 성향의 한국인들을 명예직에 다수 임명하였다. ③ 황성신문은 1910년에 폐간되었다. ④ 조선 식산 은행은 1918년에 설립된 은행으로, 조선 총독부가 은행의 인사권과 경영권을 장악하여 총독부 산하의 산업 정책 금융 기관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2018년 해법국사 2권, 애국 계몽기의 언론 활동, 716쪽 / 1910년대 일제 지배 정책, 751~757쪽)

18. 다음 사실을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ㄱ. 7재에 무학재를 두었다.
- ㄴ. 교정도감을 설치하였다.
- ㄷ. 도평의사사의 건의로 무과를 설치하였다.
- ㄹ. 경정전시과에서 무관에 대한 차별 대우를 시정하였다.

- ① ㄱ→ㄴ→ㄷ→ㄹ
- ② ㄴ→ㄷ→ㄷ→ㄱ
- ③ ㄷ→ㄷ→ㄱ→ㄴ
- ④ ㄷ→ㄱ→ㄴ→ㄷ

18. 고려 시대의 정치 상황

정답 : ④

㉠ 경정전시과는 문종 때인 1076년에 제정된 토지제도로, 무관에 대한 차별이 시정되었다. ㉡ 예종 때 전문 강좌인 7재를 설치했는데, 여택재, 대빙재, 무학재(강예재) 등을 두었다. ㉢ 최충헌 무신 정권(1196~1219) 때의 일이다. 최충헌은 반대세력을 감찰·숙청하기 위해 교정도감을 설치하였다. ㉤ 공양왕 때, 도평의사사의 건의로 무과가 정식으로 설치되었다.

(2018년 해법국사 1권, 관리 등용 제도, 216쪽 / 고려 중기의 정치 상황, 221쪽 / 무신 정변, 228쪽 / 전시과 제도와 토지 소유, 258쪽)

19. 다음 강령을 선포한 단체의 활동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우리는 완전한 독립 국가의 건설을 기함
- 우리는 전 민족의 정치적, 사회적 기본 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민주주의 정권의 수립을 기함
- 우리는 일시적 과도기에 있어서 국내 질서를 자주적으로 유지하며 대중생활의 확보를 기함

< 보 기 >

- ㄱ. 전국에 지부를 건설하고 치안대를 조직하였다.
- ㄴ. 이른바 8월 테제를 발표하여 토지 혁명을 제창하였다.
- ㄷ. 남북을 통합한 좌·우 합작으로 임시 정부 수립을 주장하였다.
- ㄹ. 전국 인민 대표 대회에서 조선 인민 공화국의 수립을 선언하였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ㄹ

19.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

정답 : ④

제시된 자료는 건준위의 강령이다. 건준위는 여운형, 안재홍 등이 광복 직후 조선 건국 동맹을 모체로 조직하였다. ㄱ. 전국에 치안대와 145개의 지부를 설치하고 각 지역의 치안과 행정을 담당하였다. ㄷ. 건준위는 남한에 미군이 진주한다는 소식을 듣고, 전국 인민대표대회에서 조선인민공화국의 수립을 선포하고 이승만을 주석·여운형을 부주석으로 임명하였다.

오답분석 : ㄴ. 8월 테제는 광복 후 조선공산당의 재건의 배경이 되는 선언으로, 건준위와는 관련 없다. ㄷ. 좌우합작위원회에 대한 설명이다.

(2018년 해법국사 2권,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 875~880쪽)

20. 밑줄 친 ㉠, ㉡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사대부가 수 백년 동안 관직에서 막혀 있어도 존부(尊富)를 잃지 않는 까닭은 집집마다 각기 한 조상을 떠받들고 넓은 농지를 점하여 종족이 흩어져 살지 않으므로 그 ㉠풍습이 견고하게 유지되고 근본이 뿔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 여유당전서 -
- 퇴계 이황이 영남 예안에 역동사(易東祠)를 창건하고 ㉡족보를 손수 필사하여 그곳에 보관하였다. ... (중략) ... 산이 있으면 물이 있는 것이니 백파(百派)가 순류하여 끝내 한곳에 모이는 것인데 이는 종합(宗畧)의 뜻이다. - 단양우씨족보서 -

- ① ㉠ - 친영이 일반화되었다.
- ② ㉠ - 이성불양의 관념으로 양자제도가 확산되었다.
- ③ ㉡ - 동성 마을의 감소를 초래하였다.
- ④ ㉡ - 적서 차별과 가족 간의 위계를 중시하였다.

20. 조선시대의 사회 모습

정답 : ③

제시된 자료의 밑줄 친 '㉠ 풍습'은 조선후기의 풍습을, '㉡ 족보'는 조선시대의 족보를 일컫는다. ③ 족보는 가문의 내력을 기록한 것으로, 안으로 종족 내부의 결속을 다지고 밖으로는 다른 집안이나 하급 신분에게 우월 의식을 가지게 하였다. 사족들은 족보를 통해 족적 결함을 강화하였고,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동성 마을이 많이 만들어졌다.

오답분석 : ① 조선 후기에는 친영 제도가 정착되었다. ② 조선 후기에는 이성불양(성이 다른 자는 양자로 삼지 않음)의 관념이 확산되어 아들이 없는 집안에서는 외손 봉사를 거부하고, 양자를 들이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④ 족보를 통해 가족 간의 위계 질서를 파악하고, 적자와 서자의 자손을 구별할 수 있게 되었다.

(2018년 해법국사 1권, 향약과 유교 윤리의 보급, 417쪽 / 가족 제도의 변화와 인구 변동, 527쪽 / 양반의 향촌 지배 약화, 528쪽)